MILAL & WORLD 02

장애인 전도 / 봉사 / 계몽

밀알&세계

표지사진

지난 1월 19일, 2026년도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수여식이 열렸다. 올해 밀알장학금을 수여받은 119명의 장애인 학생들이 학업을 열심히 수행해 장차 하나님나라의 일군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02 | 칼럼
점, 선 그리고 하나님 나라

04 | 따스한 겨울
2025 남가주밀알 송년예배

06 | 2026년 기획 연재: 밀알의 장애인신학 이야기(2)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가?

08 | My Journey as a Vancouver Milaler
Small Actions, Meaningful Connections

10 | 하나님의 마음
뉴저지밀알 산타를 아시나요?

12 | ???
장학금 수여식

14 | TEMPO Community Academy
4개월의 여정을 함께 나눈 의미 있는 시간

16 | 신년 등반
2026년 새해 아침

밀알&세계

남가주 • 북가주 • 시애틀 • 벤쿠버 • 텍사스 통합판

통권 제300호 | 2026년 2월호
발행인: 이재서 | 편집인: 장영준 | 편집책임: 이준수

지역별 구독문의
남가주: 562-229-0001 | 북가주: 408-605-2134
시애틀: 425-444-1669 | 벤쿠버: 604-339-4417
텍사스: 267-467-5971

월간 <**밀알&세계**>는 장애인들과 함께하길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정성껏 만듭니다.

월간 <**밀알&세계**>에 관한 좋은 의견이나 문의가 있으신 분은 mweditor@milalsca.org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칼럼

점, 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선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정의가 있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선 위에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선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수많은 점들의 모임으로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밀알가족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점과 선'의 이야기를 우리 밀알 사역과 연결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길, 그 선 위에 우리는 모두 하나의 점으로 서 있습니다. 어떤 점은 크고 선명해 보일 수 있고, 또 어떤 점은 작고 조용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점들이 모일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고도 아름다운 당신의 선을 이어가십니다.

수학의 세계에서는 선분이 아무리 길거나 짧아도 그 위에 놓인 점의 개수는 '무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무한함 속에서는 '더 크다, 더 작다'라는 비교 자체가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저는 이 개념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한 영혼이, 한 사역이 크거나 작아 보일지라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영혼과 모든 헌신이 동일하게 귀하고, 무한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2026년의 첫 시작점에 서서 저를 포함한 모든 밀알 가족들이 다음과 같은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모든 점을 귀하게 여깁시다. 세상이 말하는 크고 뛰어난 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은 모든 존재를 귀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크든 작든, 드러나 있든 보이지 않든, 주님께서 세우신 한 영혼과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한 모든 섬김과 헌신을 존중하는 2026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점과 점을 연결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갑시다. 세상이 결코 흉내 낼 수 없는 연결과 동역,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서는 연합, 교회와 선교단체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 선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이 완성되도록 힘씁시다. 아직도 미국의 여러 도시들과 중미와 남미의 많은 지역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장애인들과 그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복음이 없어 지치고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밀알 가족 여러분, 밀알은 지난 50여 년 동안 전 세계의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수없이 많은 점들이 생겨났고, 그 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선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그 점들이 선이 되고, 그 선들이 씨줄과 날줄처럼 엮여 촘촘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려 가는 밀알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올해도, 그리고 앞으로도 장애인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 위에서, 저는 기꺼이 밀알의 작은 점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글 | **장영준** (미주밀알 총단장, 시애틀밀알 단장)

2025 남가주밀알 송년예배

지난 12월 16일과 18일, 남가주밀알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2025년을 마무리하는 소중한 송년모임을 가졌습니다. LA 화요모임은 남가주새누리교회에서, OC 목요모임은 갈보리선교교회에서 각각 열려, 성탄의 기쁨과 한 해의 감사를 나누는 복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행사장에 정성스럽게 꾸며진 크리스마스 장식은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밀알 가족 한 분 한 분은 반짝이는 장식 앞에서 멋진 포즈로 기념사진을 남기며, 2025년의 마지막 소중한 추억을 사진첩에 정성껏 담았습니다.

각 가정에서 사랑으로 준비한 팟럭(Potluck) 식사는 그 어느 성찬보다 풍성하고 따뜻했습니다. 맛있는 식사 뒤에는 모두가 동심으로 돌아가 재미있는 레크리에이션을 즐겼고, 이어지는 경품 추첨 시간에는 장내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TV, 전기밥솥, 침구류 등 여러 개인과 단체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후원해 주신 덕분에, 밀알 가족 모두가 빈손이 아닌 풍성한 선물을 가슴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1등 경품인 10인용 전기밥솥은 LA의 김정호 형제 가정과 OC의 김현웅 집사님 가정에 돌아가 큰 기쁨을 더해주었습니다.

특별히 OC 송년모임에서는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주인공이 되어 멋진 노래자랑과 흥겨운 댄스 타임, 그리고 마음을 울리는 수어찬양을 선보였습니다. 목소리와 몸짓 하나하나에 담긴 진심과 열정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를 보냈고, 그 현장은 송년 모임의 가장 아름다운 클라이맥스로 장식되었습니다.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밀알가족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올 2026년에도 우리 밀알 가족들이 때때로 마주할 여러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일상의 작은 일에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글 | **남가주밀알 홍보부**

CUCKOO

82"
LG UHD TV

82"

82"

완벽하조

완벽하조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가?
- 장애인신학이 묻는 '정상성'의 문제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가치를 분명하게 말해 왔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성취했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관계 맺으신 존재이기에 존귀하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너무 익숙하여 더 이상 질문 되지 않는 진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애의 현실 앞에 설 때,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이 고백을 얼마나 실제적인 기준으로 사용해 왔는지 다시 묻게 됩니다.

장애인신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장애인신학은 장애를 하나의 특수한 주제로 다루기보다 인간을 이해해 온 신학의 전제를 되묻는 작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인간의 가치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정상성'이라는 개념과 연결됩니다.

정상성이라는 개념은 본래 평균이나 통계적 범위를 설명하는 용어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성은 단순한 설명의 언어를 넘어, 바람직함과 그렇지 않음을 구분하는 기준처럼 사용되어 왔습니다. 정상적인 발달, 정상적인 사고, 정상적인 신앙이라는 표현은 어느새 가치 판단의 언어로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상성은 인간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라 인간을 분류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신학은 이 정상성의 기준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만일 인간의 가치가 정상성에 의해 판단된다면 그 가치는 언제나 조건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능이 약해지거나 이해의 방식이 달라지거나 표현의 능력이 제한될 때 인간의 존엄성 역시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가치를 그렇게 불안정한 토대 위에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가치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설명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그 형상은 능력이나 상태에 의해 획득되거나 상실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신학은 이 고백을 추상적인 선언에 머물게 하지 않고, 장애인의 삶이라는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다시 읽습니다. 장애는 인간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결핍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더욱 분명히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교회 역시 이 질문 앞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예배와 교육, 공동체의 구조를 일정한 이해력과 반응, 참여 방식을 전제로 구성해 왔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자연스럽게 특정한 인간상을 중심에 두게 됩니다. 그 기준에 잘 맞는 사람들은 별다른 설명 없이 공동체의 중심에 서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도움의 대상, 배려의 대상으로만 인식되기 쉽습니다. 이때 문제는 의도의 선악이 아니라 전제가 무엇이었는가에 있습니다.

장애인신학은 교회에 새로운 기준을 요구하기보다 이미 고백해 온 신앙을 더 일관되게 실천할 것을 요청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능력 이전에 주어졌다는 고백, 신앙은 성취가 아니라 은혜라는 고백, 공동체는 효율보다 관계 위에 세워진다는 고백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 질문은 교회를 비판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교회를 더 생동감 있는 복음의 자리로 이끌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러한 신학적 사유는 밀알의 사역현장에서 매우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납니다. 밀알의 공동체 안에서는 예배의 속도가 느려지고, 교육의 방식이 반복되며, 계획되지 않은 상황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때로는 불편함을 동반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인간의 가치는 효율이 아니라 함께 하는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목표 중심적인 공동체의 가치에서 존재 중심적인 공동체로서의 은혜를 추구합니다.

밀알의 현장에서 우리는 인간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는 대신, 그 가치를 이미 인정받은 존재로 서로를 대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설명이 부족해도, 반응이 느려도,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이 배움은 장애인을 통해 무언가를 가르치려는 의도가 아니라,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며 자연스럽게 형성된 신학적 통찰입니다. 교회로 부르신 공동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몰입해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정상성을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치성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배웁니다.

이번 글이 독자 여러분께 '정상적인 신앙'과 '정상적인 교회'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된다면, 그 자체로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밀알이 제안하는 장애인신학은 인간의 가치를 새롭게 정의하려는 신학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고백해 온 인간의 가치를 더 깊이 신뢰하도록 이끄는 신학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글 | **김정기 목사** (북가주밀알 단장)

한 줄 요약: 밀알선교단이 추구하는 인간의 가치는 '기능'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love IN ACTION
FAITH IN Motion
장애인 전도·봉사·계몽
밴쿠버 밀알선교단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Small Actions, Meaningful Connections

The first day I went to Milaler Orientation, I felt nervous and unsure if I would be able to fit in since the majority of my fellow Milalers (volunteers) were Korean. But when I first stepped inside, I realized it was nothing like I had expected. The atmosphere was warm and welcoming, and everyone carried a positive energy that immediately put me at ease. Whenever I felt confused, someone was always there to guide me with patience and kindness.

That same feeling of nervousness followed me into my first day of volunteering with Milal participants(buddies). Just like at Milaler Orientation, I worried about whether I would know what to do or if I would make mistakes. However, when I began interacting with our buddies, I quickly understood that what mattered most was compassion, patience, and being present for them. That day taught me that stepping into new environments can also lead to the most meaningful experiences.

My realization became stronger during the Milaler Membership Training, where we learned how to properly support our buddies and how to respond in emergency situations. The training gave me confidence by teaching me practical skills and the importance of staying calm under pressure. It reminded me that while being kind is essential, being prepared and informed is just as important when caring for others. Together, these experiences helped me feel more capable, responsible, and committed to making a positive impact.

All of this led perfectly into our Winter Formal (prom) with our buddies, which became one of the most memorable moments of my volunteering experience at Milal. We played games, laughed and danced together. We shared happy moments that helped us make memories together that also made our bonds stronger. Seeing their smiles and excitement reminded me why I chose to volunteer and begin my Milaler journey in the first place. The party wasn't just about celebrating the end of year, it was about celebrating friendship, inclusion, and togetherness. After that day, I felt even more excited and motivated to return on Saturdays to Milal Class Agape, knowing that each visit brings new experiences and meaningful moments with my buddies.

Overall, my experience at Milal and our buddies has helped me grow both personally and emotionally. What began as me being nervous turned into confidence, understanding, and gratitude for the opportunity to be part of such an amazing community. Through training, volunteering, and celebrating big and small moments, I learned that small actions could create a lot of meaningful connections and lasting memories. My experiences at Milal showed me the true value of compassion, patience, and responsibility. I now anticipate the profound fulfillment found in our weekly service to people with special needs and fellow Milalers, cherishing each moment with my buddies, knowing its unique value is shared by them and deeply meaningful for me.

글 | **Amir Fard** (밴쿠버밀알러 2025-08)

주: '밀알러'는 밴쿠버밀알의 자원봉사자를 지칭합니다.

한글 번역 요약: 밴쿠버밀알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봉사는 누군가를 '돕는 일'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은 친절과 행동들이 모여 신뢰·우정·자신감이라는 깊은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밀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연결하는 공동체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뉴저지밀알 산타를 아시나요?

뉴저지밀알 가족들은 '김정혜' 권사님을 '산타 할머니'로 부릅니다. 밀알에서 1시간 이상 떨어진 중부 뉴저지에 사시는 권사님은 김은실 밀알 이사장님을 통해서 몇 년 전부터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봉사 시작부터 당신의 생신 때 남편과 자녀들에게 권사님 대신 밀알 친구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게 하고, 온 가족이 출동하여 사랑의교실 찬양 인도와 식사 봉사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밀알칼리지 종강 파티 때에는 해마다 친구들의 선물뿐 아니라 봉사자들, 선생님들, 직원과 직원 가족들에게까지 권사님 혼자서 모든 선물을 바리바리 준비해 주십니다. 밀알은 권사님의 산타 모자(?)만 하나 준비합니다.

선물이 5불, 10불짜리도 아니고 20불짜리도 아닙니다. 권사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인지, 고가의 선물을 한 번도 아니고 그렇게 때마다 모두에게 하실 수 있을까요? 심지어 Mother's Day에는 사랑의교실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생 봉사자들 어머니들께도 선물을 하셨습니다. 어

디 뉴저지 뿐인가요! 방글라데시 선교를 갈 때마다 선교사님들과 현지 직원들을 위하여 화장품과 명품백(?) 그리고 트레이더조 토트백까지 준비해 주십니다.

또 여름이면 집 뜰과 교회에서 농사 지은 고추, 오이, 깻잎 호박 등을 자동차에 잔뜩 싣고 그 먼 거리에서 아무 때나 오십니다. 밀알 가족들은 벌써 몇 년째 신선한 유기농 고추 오이를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셔서는 한국 식당에 들러 한국 음식을 바리바리 투고하셔서 집 주변에서 한식을 잘 드시지 못하는 성도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봉사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산타를 보신 적이 있나요?

권사님은 결혼 때문에 미국에 들어오셔서 대학을 다 마치지 못한 것이 평생 마음에 걸려 늦은 나이에 남은 학기를 마치려고 한국에 들어가셨다가, 나이든 자신이 학위를 마치는 것보다는 그것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돕겠다고 마음을 바꾸시고, 10만불을 장학금으로 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부자가 아니라는 데 더 큰 감동이 있습니다. 평범한 미국 중산층 가정입니다. 남는 돈으로 기부와 후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쓸 것을 절약해서 남에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절약하고 하나님과 이웃에게는 후히 드리는 분이십니다.

'산타'라는 별명은 사실 권사님께 어울리는 별명이 아닙니다.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권사님의 내면에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권사님을 뉴저지밀알에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16)

글 | **강미경 사모** (뉴저지밀알)

| 2026년도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수여식

사랑으로 심은 희망의 씨앗, 119명의 장학생에게 결실로 피어나다

미주밀알선교단이 주관하는 '2026년도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수여식'이 1월 19일(월) 오전 11시, Buena Park에 위치한 갈보리선교교회(담임 심상은 목사)에서 장학생들과 가족, 여러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롭게 거행되었습니다.

이정수 남가주밀알 행사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밀알찬양팀의 뜨거운 찬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밀알 사역의 감동을 담은 '밀알스토리' 영상이 상영되었으며, 이준우 교수(강남대·풀러신학교)의 간절한 기도와 심상은 목사(남가주밀알 부이사장)의 깊이 있는 설교가 이어졌습니다.

심상은 목사님은 갈라디아서 6장 7~9절을 본문으로 한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땅에 씨앗을 심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며, "오늘 장학금을 받은 장애인 학생들이 비록 어려운 여건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망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고 이를 부단한 노력과 인내로써 정성껏 가꿔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바란다."란 말씀으

로 장학생들을 따뜻하게 격려하셨습니다.

이후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됐고, 이종희 남가주밀알 단장의 감사의 말씀, 그리고 이준우 교수와 김병학 목사(주님의교회 담임)의 격려사에 이어 이영선 미주복음방송국 사장의 축도로 2025년도 밀알 장학금 수여식이 모두 막을 내렸습니다.

이중열 남가주밀알 이사장과 이정수 이사, 심상은 목사, 김병학 목사, 이준우 교수, 양희원 이사, 이영선 사장, David Chang 대표, Wayne Uyehara 목사, 이종희 단장, 그리고 이준수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장학금 수여식에서 미주장애인장학생 7명과 근로복지생 3명, 꿈나무장학생 18명, James Worldwide 장학생 10명, Moon Foundation 장학생 10명, Chong's Family Foundation 장학생 5명, Faith and Donovan Chang Foundation 장학생 16명, 제3국 및 동남아 장학생 20명, 장애인선교사역자 육성장학금 20명, 긴급지원 대상 추가 기금 10명 등 총 119명에게 $134,888의 장학기금이 전달되었습니다. 이로써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이 처음 출범한 2001년부터 2026년까지 누적 총 지급액은 $3,281,488에 이릅니다.

이번에 수여된 장학금은 작년 10월 초 개최된 '2025 밀알의밤'을 통해 모금된 소중한 재원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밀알의밤을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풍성한 장학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합력해 주신 모든 후원자님과 교회, 단체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의 사랑과 정성으로 장학금을 받게 된 119명의 장애인 학생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육 간에 더욱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들이 큰 비전을 품고 학업에 정진하여, 장차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아름답게 섬기는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글 | **남가주밀알 홍보부 드림**

| TEMPO Community Academy

4개월의 여정을 함께 나눈 의미 있는 시간

2025년 12월 13일, 지난 8월부터 'TEMPO(Trust Empowerment Motivation Passion Opportunity)'와 뉴욕밀알이 함께 진행해 온 TEMPO Community Academy가 수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4개월간 요리, 컴퓨터, 미술 수업의 여정을 함께 돌아보며, 그동안의 성장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프로그램과 향후 계획을 학생들,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20년 가까이 밀알 프로그램과 함께해 온 오랜 밀알 가족분들, 그리고 밀알 아카데미를 통해 새롭게 인연을 맺은 새로운 밀알 가족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만남은 밀알 아카데미가 뉴욕 한인사회 안에서의 장애 선교에 머무르지 않고, 다민족 가정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배움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첫 번째 큰 걸음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밀알 아카데미는 배움과 나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연결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 학생들과 그 가정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4개월 동안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직접 발표하는 수업 프레젠테이션을 시작으로, 아이들의 개성과 노력이 담긴 미술 작품 전시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한편, 뉴욕주 언어치료사님을 초청해 밀알 아카데미가 지원하는 학생들의 사회적 기술 향상과 일상생활 속 디지털 기기 활용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의사소통 기반 기기와 AAC(보완대체의사소통) 기기를 가정과 일상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가족분들과 질의응답을 나누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뉴욕주에서 받을 수 있었던 다양한 지원에 대한 질문부터, 가정에서도 이어질 수 있는 지원 방법에 대한 궁금증까지 함께 나누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가 학생들의 배움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넘어, 밀알 아카데미가 각 가정과 마음을 이어주는 따뜻한 연결의 시간이 될 수 있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글 | **김인애** (뉴욕밀알, TEMPO Community Academy 디렉터)

| 신년 등반

2026년 새해 아침, 스톤마운틴 정상에서 울려 퍼진 희망의 기도

쾌청한 하늘 아래 2026년 1월 1일 목요일, 애틀랜타 밀알 가족들이 '스톤마운틴' 등반과 함께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온 밀알의 유서 깊은 전통인 신년 등반이 올해는 특별히 장애인 체육회와 공동으로 진행되어 그 의미가 더욱 깊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른 아침부터 밀알센터를 출발한 두 대의 밴과, 현장으로 직접 모인 가족들이 하나 되어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숨이 차는 오르막길이었으나 서로의 등을 밀어주고 손을 이끌어주는 과정 속에서 함께함의 기쁨과 감사를 깊이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참

여하신 휠체어를 탄 제임스 선생님과 일부 학생 및 학부모님들은 케이블카(Summit Skyride)를 이용해 정상에 올라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힐 즈음 마주한 정상의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가슴속 막힌 담을 허물 듯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모든 밀알 가족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강한 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마다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가족들의 얼굴에는 2026년을 향한 희망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산을 오르는 열정만큼이나 조심스럽게 하산을 마친 후 밀알센터에 모여 따뜻한 떡국을 나누었습니다. 정성껏 빚어 오신 만두와 갓 버무린 겉절이의 환상적인 조합은 산행의 피로를 잊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떡국을 정성껏 준비해 주신 모든 어머니와 사역팀, 교회 버스를 기꺼이 대여해 주신 실로암교회, 그리고 자리를 빛내주신 이사님들과 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2026년 한 해에도 우리 애틀랜타밀알 가족과 어김없이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Happy New Year 2026!

글 | **애틀랜타밀알 홍보부**

지단별 소식

남가주

2026년도 남가주밀알 표어

2026년 남가주밀알 표어는 “열매로 드려지는 밀알공동체” 입니다. 밀알가족 모두 한 알의 밀알로서 성숙을 넘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주님께 드리고, 이웃을 위해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2026년도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수여식

1월19일(월) 오전 11시, Buena Park에 위치한 갈보리선교교회에서 2026년도 밀알장학금 수여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올해는 총 119명의 학생들에게 $134,888의 장학기금이 지급됩니다. 장학생들의 학업과 삶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LA 화요예배 (1월)

- 6일: 조영건 목사님께서 “새 이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대표기도는 전성도 전도사님이, 특송은 밀알 사역자 분들이 섬겨주셨습니다. 또 1월 생일 맞은 분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고, 저녁 친교는 강경원 장로님 댁에서 준비해주셨습니다
- 13일: 이종희 단장님께서 “열매로 드려지는 밀알공동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대표기도는 이영주 사모님이, 특송은 다니엘조 집사님이 섬겨주셨습니다.
- 20일: 한국 강남대 교수인 이준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대표기도는 강문구 집사님이, 특송은 이용진 집사님이 섬겨주셨습니다.

OC 목요예배 (1월)

- 8일: 이종희 단장님께서 “열매로 드려지는 밀알공동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대표기도는 백현 집사님이, 특송은 밀알 사역자 분들이 섬겨주셨으며, 저녁 친교는 밀사모에서 준비해주셨습니다. 또 1월 생일 맞은 분들을 축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 15일: 이은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대표기도는 신지혁 형제님이, 특송은 김동훈 형제님이 섬겨주셨습니다. 저녁 친교는 밀알에서 준비해주셨습니다.
- 22일: 필라델피아밀알 이재철 단장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대표기도는 김오분 권사님이, 특송은 제시카송 자매님이 섬겨주셨습니다.

사랑의교실 (1월)

- 3일: 겨울방학이 이어지는 가운데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의교실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한 해 동안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 10일: 사랑의교실 봄학기 개강이 가까워지며 각 교실에서는 스태프 모임과 커리큘럼 점검으로 새 학기 준비가 한창입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 17일: 사랑의교실 봄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버디와 봉사자들이 만나 서로를 알아가며 따뜻한 첫 시간을 보냈고, 교실마다 밝은 웃음과 활기가 가득했습니다.
- 24일: 이번 주에는 스트레칭, 공놀이, 배드민턴, 워십댄스 등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해 친구들의 건강과 발달을 돕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활동 속에서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 즐거움과 보람을 함께 나눴습니다.
- 31일: OC branch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베이킹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재료를 직접 만지고 섞으며 순서를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즐거움과 성취감을 경험했고, 교실에는 달콤한 웃음과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서로를 도우며 완성한 작은 결과물들이 더 큰 기쁨으로 이어진 시간이었습니다.

남가주밀알 2월 기도제목

- 2026년 한 해 동안도 남가주밀알의 모든 사역을 형통하게 이끌어주시고, 장애인 전도, 봉사, 계몽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장애인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 LA화요모임, OC목요모임이 계속 은혜롭게 진행되어 밀알가족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 토요 사랑의교실 7개 브랜치가 은혜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되고, 교사,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참가자들도 적극적으로 예배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밀알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도록.
- 스탭들과 모든 밀알가족들, 후원해주시는 교회들과 후원자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소망, 감사가운데 2026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 2026년 밀알 장애인 장학생들이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일군들로 준비되고 학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북가주

북가주밀알의 2월

1월의 조용한 쉼과 준비의 시간을 지나 북가주밀알 공동체는 2월을 맞아 다시 예배와 사역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멈춤의 시간 속에서 다져진 마음과 기도는 다시 시작되는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2월은 ‘다시 모임’과 ‘다시 섬김’의 달로, 밀알이 맡겨진 사명을 새 마음으로 이어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또한 2월은 만남과 헌신의 달로, 준비에서 실천으로, 계획에서 현장으로 나아가는 시기입니다. 1월 동안 기도로 준비된 마음들이 실제 섬김으로 이어지며, 밀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걷는 신앙’이 다시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 교실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귀하게 존중받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북가주밀알의 정기 사역

- 밀알 화요예배 재개: 북가주밀알 화요예배가 2월 첫째 주 화요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30분에 식사교제와 예배로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며, 장애인과 일반인이 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다시 모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쉼의 시간 이후에 드려지는 첫 예배가, 각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공동체를 다시 하나로 묶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장소는 1, 2, 4, 5주는 세계선교침례교회(고상환 목사 시무)이고, 3째 주는 산호세한인장로교회(박석현 목사 시무)입니다.
- 토요 사랑의교실 재개: 산호세 사랑의교실(장소: 산호세새소망교회)과 산타클라라 사랑의교실(장소: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이 2월 첫째 주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 친구들과 가정,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다시 만나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웃음을 나누는 이 시간이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배우는 거룩한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원봉사자 교육, 새해 사역의 기초

1월 31일에 진행된 사랑의교실 자원봉사자 교육을 통해 기존 봉사자들과 새로 참여한 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역의 방향과 마음을 다시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오리엔테이션을 넘어 ‘우리가 왜 이 사역을 하는가’, ‘장애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묻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세워진 동일한 마음과 방향성이2월부터 시작되는 모든 사역의 든든한 기초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월을 향한 기도 제목

- 월의 시작과 함께 북가주밀알을 위해 아래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다시 시작되는 화요예배와 토요 사랑의교실 위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도록
- 참여하는 모든 장애인 가족들이 예배와 교실 안에서 환영받고 존중받는 경험을 하도록
- 자원봉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의 부담이 아닌 기쁨의 헌신으로 섬길 수 있도록
- 밀알 스텝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더하셔서,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도록
- 북가주 지역 교회들이 계속해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의 사명을 발견하고 동참하도록

시애틀

시애틀 사랑의교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사드립니다. 2026년 새해에도 늘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교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0일 사랑의교실은 성탄축하예배로 밀알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날 심우진 목사님(시애틀밀알 이사장)께서 설교를 해주셨고, 박성진 목사님께서 축도를 해주셨습니다. 식사는 특별히 형제교회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탄 트리 앞에서 가족들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랑의교실 되길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사랑의교실은 2월 7일부터 시작합니다. 늘 밀알을 위해 여러모로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영준 목사 425-444-1669, 남성식 디렉터 425-361-9368)

시애틀 밀알아카데미(S.M.A)

매주 화요일 성인 장애인을 위한 정기모임이 있습니다. 음악수업, 크래프트, 탈춤, 북클럽, 산책, 마트 장보기, 영화보기 등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6일 2주간의 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했습니다. 예배와 북클럽 수업을 하고 장아련 사모님이 준비해 주신 떡 만두국을 먹었습니다. 식사후에 AMC극장에 가서 'David' 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모두 즐겁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2026년에도 더욱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넘치는 SMA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더 많은 봉사자(남자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봉사자들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봉사자로 자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타코마 밀알아카데미(T.M.A)

매주 목요일 타코마 성인 장애인 정기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 음악수업, 체육, 크래프트, 산책, 견학 등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1일 가족들과 함께 하는 성탄 축하예배를 드렸습니다. 장영준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셨고, 이형석 목사님이 축도해 주셨습니다. 예배 후 풍성한 점심식사를 나누고, 정성껏 준비한 선물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현재 밀알은 방학 중이고 2월 5일에 개학합니다. 방학동안 건강하고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남자 봉사자들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많은 봉사자들로 인해 TMA의 귀한 사역이 더 풍성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밀알에 귀한 사무실과 사랑의교실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시애틀연합장로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타코마 사랑의교실에 장소,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타코마중앙장로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S.M.A 장소와 15인승 Van을 사용하도록 해 주시는 시애틀 형제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매월 1회 SMA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시애틀 주언약교회, 낮은 울타리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매월 1회 사랑의교실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시애틀연합장로교회, 형제교회, 시애틀온누리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알립니다

- 12월 21일 장영준 목사는 벨링햄 화평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 12월 17일 미주총단 임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 시애틀형제교회 Star Ministry(장애인 주일학교)예배가 주일 오후12시에 있습니다.
-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사랑부 예배가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 시애틀 온누리교회 사랑부 예배가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지역에 장애인(자폐 및 지적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 예배를 소개해 주세요.
- SMA(시애틀 성인장애인 모임), 매주 화요일 오전 10:30~오후3:00 성인장애인을 위한 예배와 활동(음악, 미술, 탈춤, 독서클럽, 산책, 시장보기, 체육, 외부활동)이 있습니다. 주위에 성인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하실 봉사자가 있다면 밀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시애틀 형제교회 빌딩2, 109호)
- TMA(타코마 성인장애인 모임), 매주 목요일 오전 11:00~오후3:00 성인장애인을 위한 예배와 활동(음악, 미술, 요가, 산책, 체육, 외부활동)이 있습니다. 주위에 성인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하실 봉사자가 있다면 밀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밀알에서 필요한 것

- 시애틀 사랑의교실 친구들의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지원할 개인과 교회를 찾습니다. (견학, 스포츠게임, Dancing, 태권도 지도, 동물원관람 등 사회적응프로그램 재정지원)
- 매주 토요일 사랑의교실에 필요한 점심과 간식을 제공해 주시고 봉사해 주실 교회나 단체, 개인이 필요합니다. (종이접시, 컵, 플라스틱 수저, 포크, 넵킨, 물도 필요합니다)
- 매주S.M.A(화) 와T.M.A(목) 성인장애인 예배와 활동 모임에 점심식사와 간식을 제공할 교회와 개인을 찾습니다. (20명)

기도해 주세요

- 2026년 새해에도 밀알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도록
- 장애인 사역에 헌신된 사역자와 봉사자를 보내 주세요.
- 사랑의교실과 SMA & TMA친구들과 가정, 봉사자를 위하여
- SMA에 새로 오신 음악 선생님과 탈춤 선생님을 위하여
- 새로 온 사랑의교실 장애인 친구들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맘껏 이용할 수 있는 '밀알아트센터'가 세워지도록
- 매주 화, 목요일 진행되는 성인장애인의 모임인 SMA, TMA을 위하여
- 사랑의교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도록
- 시애틀 온누리교회 사랑부(장애인)사역을 위하여
- 타코마제일침례교회의 사랑부(장애인)사역을 위하여
- 시애틀 형제교회 장애인 주일학교 Star Ministry(장애인)를 위하여

밴쿠버

밀알 사랑의교실 Happy Together

밀알에서 행복한 친구들과 밀알봉사와 함께 성장해 가는 밀알러들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밴쿠버밀알 사랑의교실 Happy Together는 행복한 예배와 즐거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지난 12월 13일에는 요한복음 10:28 및 11:25을 본문으로 'Life: The Son of God having given Himself for us'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점심은 밀알자모회 엄마들이 <밀알러 어프리시에이션 파티>를 겸해서 <종강파티>를 정성껏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시 방학에 들어갔다가, 1월 17일에 새 학년도를 시작했습니다. 새 학년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밴쿠버밀알가족을 구원해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윈터포멀: 댄스파티

12월 13일 오후에는 <윈터포멀: 댄스파티>를 열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어울려서 몸을 사용하여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신 삶의 시간을 즐기는 댄스파티는 마치 또 다른 예배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축복된 행사였습니다. 특별한 아이디어와 헌신으로 빛나는 시간을 선물해준 우리 밀알러들에게 찬사를 표합니다.

이 행사를 지원해주신 한교회(담임목사 한기현)와 그레이스한인교회(담임목사 박신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크리스피 크림도넛 펀드레이저
밴쿠버밀알은 해마다 12월에 <크리스피 크림도넛 펀드레이저>를 진행합니다. 올해에도 열 두 교회와 밀알러들을 포함한 개인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밀알 1일 단기선교
<밀알 1일단기선교>는 시간을 많이 내지 않고도, 멀리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도, 따로 휴가를 내지 않고도,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단기선교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또한 아주 특별한 선교입니다. 매주 토요일에 밀알이 진행하는 사랑의교실에 몇 시간 함께 하시는 것으로 훌륭한 단기선교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 교회나 기관 단체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604-339-4417).

밀알러(발룬티어) 오리엔테이션
1월 10일은 <밀알러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여 2026년도 사랑의교실 및 밀알선교사역을 준비했습니다. 두 명의 새로운 지원자를 포함하여 약 30여 명의 밀알러가 참여한 오리엔테이션은 밴쿠버밀알 비전팀이 각 세션을 이끌었고, 밀알러들이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팀편성까지 계획한 시간 내에 잘 마쳤습니다. 2026년에 밴쿠버밀알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날 점심은 참빛교회(담임목사 임건택)가 지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밀알러(발룬티어 리쿠르트
밀알러로 함께할 발룬티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축복된 경험을 함께 하고 싶은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안내해 드리는 방법을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기 오리엔테이션은 1월 초와 8월 말 혹은 9월 초에 진행합니다. (신청방법: www.vancouvermilal.com > volunteer)

밀알선교사역 나눔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밀알선교사역 및 장애인 '선교'에 관하여 알기 원하거나, 함께 할 관심이 있는 교회, 기관 및 단체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604-339-4417). 밀알선교사역 나눔은 설교, 선교설명회, 선교박람회 기회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e-transfer 후원방법 안내
이트랜스퍼를 통하여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밀알을 후원하시면 세금감면을 위한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하실 때, 영문이름, 포스탈코드를 포함한 주소, 이메일을 남겨 주세요. (연락처: giving@vancouvermilal.com)

The Prayer & The Bridge
밀알선교사역을 위한 중보기도에 헌신하실 분을 찾아 함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월 $10(한 구좌) 정기후원하실 분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구좌를 맡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와 동역을 부탁드립니다
- 장애인 전도 봉사 계몽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장애인의 회복으로 표상되는 하나님 나라의 임함에 쓰임 받게 하시고, 복음사역, 성령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이 되게 하소서.
- 지역교회와 함께 장애인선교의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지역교회 및 관심 있는 그룹들과 장애인 '선교'하는 밀알사역을 나누는 기회를 더 많이 갖게 하옵소서.
-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좋은 봉사자, 기도 및 재정 후원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소서.
- 2026년 밴쿠버밀알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밴쿠버의 장애인들과 그 가정들이 밀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게 하소서.
- 기도와 성령으로 섬기는 밀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밀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밀알, '사람을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사역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밀알로 세워주소서.
- 굿즈프로젝트 <투게더>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우리 친구들을 잘 돕고, 사역에 인적, 물적 힘을 더하는 결과를 주옵소서.
- <밴쿠버밀알러 프로젝트: '꿈 너머 꿈'> 조직이 튼튼하게 세워지고 연결이 잘 되게 하시어, 하나님나라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 <Bring Your Sibling / Friends Day, 2월 28일>, <밀알러 엠티, 3월 13-14>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 단장 이상현 목사님과 유혜정 사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 부탁합니다.

텍사스

토요 사랑의교실 (12월)
10시부터 모여 찬양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는 Bible study와 Art & Craft 활동을 설교 중심으로 분반하여 진행하고, Gym으로 옮겨 가서 발달에 필요한 여러가지 신체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맛있는 점심을 먹고, 다시 Bible study 와 Art & Craft 반을 스위치해서 진행한 후, 음악치료를 했습니다.
여러 교회, 단체 및 개인들께서 재정과 음식으로 섬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scape Bakery 에서는 봉사자들을 위한 베이커리로 섬겨 주셨고, 6일에는 조이풀 교회에서 맛있는 점심으로 섬겨 주셨으며, 13일에는 크리스마스파티와 2025년도 마직막 모임을 가졌는데, 베다니장로교회를 통해 크리스마스 선물이 전달되었고, Intelllichoice의 이길식 교수님께서 자원봉사자를 위한 아침 식사를 마련해주셨습니다. 특히 밀알 학부모회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의 헌신과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토요 사랑의교실에 점심봉사를 원하시는 개인과 단체는 다음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또한 토요 사랑의교실에 참여하기 원하는 5세 이상장애인들은 연락주세요. 267-467-5971, txmilal@gmail.com

2026년 밀알오케스트라 5기 단원 모집
밀알 오케스트라에서 2026년 5월에 있을 정기연주회에 함께 할 단원을 모집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참여 가능하고, 매주 토요일1:30에 모여 리허설을 합니다. 5회 정기연주회는 좀 더 다양한 음악 스펙트럼을 준비 중입니다. 기악이나 성악에 관심있는 15세 이상의 지원자는 텍사스 밀알선교단으로 문의해주세요(267-67-5971)

2026년 밀알 사역 시작
1월 5일부터 2026년 텍사스 밀알선교단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올 해는 몇 가지 Pilot Project를 진행해보며 2027년 사역을 준비합니다. 함께 기도해주세요.

텍사스밀알 합창단원 모집
노래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모든 장애인, 장애인 가족, 비장애인 모두를 초대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선교단으로 문의하세요. (267-467-5971, txmilal@gmail.com)

기도합니다
- 텍사스밀알선교단을 통해서 장애인이 영적으로 회복되며 구원받을 수 있도록.
-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원 봉사자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한 봉사자들이 밀알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며, 밀알에서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동역자로 성장하게 하소서
- 텍사스 다른 지역에 사랑의교실 사역을 확대하길 원합니다. 합당한 만남을 주장하소서
- 지금의 봉사자들이 다음 세대의 리더로 세워지게 하소서
-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언어, 미술, 운동, 행동치료 등의 전문가 그룹을 조성하게 하시어 밀알 토브 사역이 진행되게 하소서
- 지역의 여러 교회가 밀알 사역을 선교지로 알게 하시어, 선교에 동역하는 마음을 부어주소서. 그리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장애인 선교의 창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도하소서
- 5월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최선으로 준비되게 하소서
- 합창단원이 모여져 하나님을 목소리로 찬양하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소서
- 2026년에 계획한 사역이 순적한 방법으로 진행되게 하시며,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역이 이뤄지게 하소서

재정보고 2025년 12월

| 남가주

■ **INCOME: $72,878.00**

Individuals: $24,676.50 $30 Hyoung Il Seo, Jack C. Kim, Youn G Ro / $46.50 Missionary Deborah / $50 David S Shin, Jaebine Song / $100 Anthony D & Chun C. Gamble, Ho Myoung & Won Sook Lee, Hyun Suk Jin, Mi Sup Lee, Okhee Chang, Sooyoung Choo, Sung Jin Kim, Young Soon Park, Hyun S Lee / $200 Jaemin Youk, June Sin, Kyung Won & Sang Mi Kang / $240 Oh Bun Kim / $400 Ok Kyung Kim / $500 Chungsu Hong & Hyeyoung Yoo, Hong Royong Kim & Jung Soon Ku, Hwan & Alice S Lew, Steven Chul Kim / $1,000 Inju Uyehara, Laura Soobin Cho / $2,000 Yong Gyu & Heakyung Jeon / $3,000 A-Young Ahn / $3,300 David Heung & Jeong Mi Kim / $5,000 David & Ashley Kim, Minji Cho

Church & Business: $12,410.00 $50 Alabama Full Gospel Church / $100 God's Righteousness Church, Han Woo Ri Korean P.C. of Riverside, Salt Covenant Church / $150 The Lighthouse Mission Church / $200 Bethel Korean Church, Choong Hyun Ch(Good Samaritan Fellowship), Korean Young Saeng Presbyterian Church, Light of Love Mission Church / $250 El Paso Central Baptist Church / $300 Cerritos Presbyterian Church, H.D. Grace Church, Irury LLC, Las Vegas Vision Church, Sac Tee, Sarang Community Church, Shalom Church of So. California, The Lord's Community Church / $400 Bankcard Services, Beautiful Hill Presbyterian Church, New Life Oasis Church / $500 General Metal Recycling Co., Santa Barbara Korean PC / $600 Suh Moon Presbyterian Church / $610 Berendo Street Baptist Church / $900 Full Gospel LA Church, Thanksgiving Church / $1,250 Irvine New Life Korean Church / $2,000 Key Benefits & Planning Inc.

Specials & designated donation: $35,791.50 $50 Fidelity Charitable / $1,700 Designated for Rent / $10,750 Christmas / $65.84 US Treasury Refund / $200 Tuesday Worship / $500 GMU NCI / $700 The Korean Church of OC / $733 Thursday Worship Offering / $1,142 Tuesday Worship Offering / $3,000 New Life Vision Church / $10,000 Koh Charitable Foundation / $200 Thursday Worship / $400 Class AGAPE / $6,350.66 Camp Fundraising

■ **EXPENSE: $36,735.82**

Class AGAPE: $2,523.95 $329.97 Class Outings / $241.02 Meals & Snacks / $222.83 Materials & Supplies / $1,450.71 Events & Meetings / $279.42 Gifts for Teachers & Volunteers

Media Mission: $3,588.79 $1,375 M&W Publication / $1,507.08 M&W Shipping for Dec. & Jan. Publication / $42.21 PO Box / Return mail / $664.50 Supplies

Meetings & Events: $1,658.95 $575.69 Bigbear Family Retreat / $100 Class Reimbursement / $631.09 Class AGAPE Head Teachers Meeting / $46.64 Executive Directors Meeting / $305.53 Villahermosa Milal

Charitable Supports: $10,498.64 $500 Periodic Supports / $300 Palm Misson Church / $1,865 Kosovo Milal / $250 Funeral Flower for Lee Family / $1,345.84 Tuesday Worship / $1,495.80 Thursday Worship / $4,742 Christmas Party & Gifts

Fundraising Expense: $2,965.73 $2,468.31 Merchandise / $497.42 Packaging Supplies

Payroll Expense: $8,724.63 $5,508.25 Salaries & Wages / $421.38 Payroll Tax / $800 Employee Benefit / $1,995 Housing Support

Admin & Management: $6,338.74 $5,011.23 Rent / $60.89 Woongjin / $332.25 FBM / $136.78 Telephone & Internet / $320.10 Electricity / $65.68 Office supplies / $161.54 Office meals / $213 SBA EIDL Interest / $37.27 Postage & Shipping

Auto Expense: $436.39 Gas

Previous Carry over Balance: $20,236.37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56,378.55

■ **Milal Scholarship Finance Report**
INCOME: $4,688.00 <Church & Business $2,988: $300 Milal Mission in Philadelphia, Irvine Onnuri Church / $1,500 Milal Mission in Atlanta / $888 Faith and Donovan Chang Foundation> <Specials & designated $1,700: $1,000 Julianne Lee designated for Jonghoon Lee / $500 KMCM Foundation designated for Dana Ham / 200 Milal Night Brochure Ad.)
EXPENSE: $24,878.98 <Class AGAPE $5,650.98: Teachers' Compensation> <Scholarship $19,228: $2,100 Collegians / $900 Volunteer Aids / $2,000 Designated / $13,228 Reserved Ministers Supports / $1,000 Third Countries>
Previous Carry over Balance: $111,918.36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91,727.38

| 북가주

■ **INCOME: $31,120.40**

Individuals: $8,975.00 $50 Kim Misuk, 김신자, 김영, 나정화, 이우성, 정찬미&이석권, 조태묵&정숙 / $80 김애경 / $100 Klepeis Family, Jonathan & Joung Ok Han, 강원모&김유진, 김만종&정애, 박화영, 안소영, 이승헌&김미숙, 전원일&연실, 최기성, 황명숙&데이빗황 / $200 공은정&명진, 박의훈, 최영훈&재현 / $250 Grace Choi, 레이첼가정 / $300 김경숙, 오영수 / $335 김정기&남경아 / $400 이지선&학천 / $500 강태우&미사, 차현상&김은미 / $510 김산식&복순 / $600 조한나 / $1000 정소라가정 / $2000 김유동&김지원

Church & Business: $8,403.40 $100 브루스리미용실, 산호세순복음중앙교회, 세화교회 / $132 산호세 새소망교회 / $200 Luxe Apparel & gift, the Light of Christ Church, 이스트베이한빛교회 / $240순복음산호세교회 / $300 임마누엘장로교회(밀알목장) / $400 뉴라이프교회, 상항한인반석교회, 임마누엘장로교회 / $500 이학천CPA / $600 심포니교회, 파소로블스한인장로교회 / $750 세계선교침례교회 / $1,181.40 AOGRcauses.benevity.org / $2000 살리나스 영광교회

Designated Donation: $13,742.00 <사랑의교실 $300: $100 김정기&남경아 / $200 안수빈가정> <청년밀알 $400: $100 박상우 / $300 엠마오선교원> <화요예배(멕시코밀알선교헌금포함 $1922) $3,042: $100 Sang Y Yoon & Gyeong H Lee, 김성준, 김영, 김윤선, 레이첼가정, 정소라가정, 조한나 / $120 이강진&권유진 / $200 김정기&남경아 / $720 전송화 / $1000 국태호가정 / $302 무기명> <차량지정후원금 $10,000: 정찬미&이석권>

■ **EXPENSE: $16,906.60**

Mission Expense: $10,796.62 사례비(5인) $7,010.42 / 선교활동비 $304.79 / 미주밀알지원 $738.53 / 은급비 $300 / 화요예배 $1,906.06(성탄선물 $1,540.36 / 유류비 $341.18 / 생일 $24.52) / 멕시코밀알선교 $344.23 / 사랑의교실 $192.59

Admin. & Management: $3,857.88 유틀리티 $151.42 / IRS Tax $489.54 / 사무실임대료 $1,400 / 책임보험료 $1816.92

Auto Expense: $811.47 세차 $21.99 / 차량등록 $618 / 유류비 $171.48

Media Mission: $1,440.63 밀알&세계발송비 $336.03 / 밀알&세계인쇄비 $1,104.60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14,610.04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28,823.84

| 시애틀

■ **INCOME: $28,790.00**

Individuals: $20,620.00 $30 남숙희, 남숙희 / $50 이영자, 조성배, 박진경, 임종일 / $100 김복조, 김해정, 송인숙, 경자혼, 김경자, 이행순, 손희섭X2 / $200 조천석, 문창선, 오수미, 브랜든 오 / $300 김순홍, 그레이스 안 / $400 최지은 / $460 장영준&장아련 / $500 밥브러쉬&이미나 / $800 이명운 / $1,000 김미란, 한성수 / $14,000 오태욱

Churches: $5,950.00 $100 밴쿠버 사랑장로교회, 자유교회, 벨링햄화평교회, 퓨알럽 한인장로교회, 순복음큰빛교회, 타코마 삼일교회 / $150 페더럴웨이 벧엘침례교회 / $200 페더럴웨이 중앙장로교회, Connection Church, 시애틀평강장로교회 / $300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좋은이웃교회 / $500 시애틀 큰사랑교회, Seattle Resound Church / $1,000 시애틀 연합장로교회, 옥하버 한인장로교회, Fish 153 Foundation

Businesses: $400.00 $100 임학수CPA / $300 Fair Ridge Law Firm

Designated Donation: $1,820.00 $1,400 SMA & TMA / $420 화장품 Fundraising

■ **EXPENSE: $14,149.24**

Mission Expense $3,655.51 / Admin & Management $2,384.76 / Media Mission $1,315.18 / Class AGAPE $953.65 / 상회비 $439.60 / SMA&TMA $2,239.09 / Tax $447.97 / 성탄행사 $1,489.47 / Special event $420.66 / Insurances $353.11 / Pastoral Visit $150.24 / Retirement Plan $300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52,587.35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67,228.11

| 밴쿠버

■ **INCOME $14,079.40**

Individuals: $1,010.00 $10 김형용, 계영실 / $20 이경순, 한은순 / $30 원소현, 테레사최 / $40 정미영(11월, 12월) / $50 이혜영, 오정석 강향숙 / $100 이재림(11월, 12월), 곽혜경, 이상현&유혜정 / $200 하준석, 윤영로

Church & Business: $3,770.00 $100 헤브론교회(12월) / $200 오로니아 / $300 삼성교회 / $400 러브밴쿠버(WJD Foundation 11월, 12월) / $570 밴쿠버중앙장로교회 / $1,000 Salt & Light Mission / $1,200 Sun Jin Trading Inc(이양수)

Specials & Designated donaation: $9,299.00 <12월 사랑의 교실 예배헌금 $779.40: $20 김도건, 에드윈, 오예찬, 이해, 무명 / $25 김민재 / $50 이예담 / $100 박수영(11월, 12월) / $500 김이안 / 무명 $4.40> <윈터포멀 $2,000: 한교회(김진경), 그레이스한인교회> <밀알러파티 $200: 김은배&정기라> <도넛펀딩 $5,820: $20 권용진, 이상화, 송신애, 이민형, 장하은 / $25 손예랑, 고지원 / $40 정인혜, 우정희 / $50 붕선화, 손승순 / $60 윤문진 / $75 김수정 / $80 박해봉 / $100 박하린 / $115 김예은 / $45 두드림교회 / $100 코이노니아한인교회 / $135 선한목자교회 / $140 소망교회 / $180 성산교회 / $300 테바교회 / $400 세우신교회 / $440 예수사랑교회 / $540 우리교회 / $615 할렐루야교회 / $695 한사랑교회 $850 조이풀교회 / ((도네이션 $620)) $10 권용진, 정인혜, 송신애 / $20 윤영로 / $35 김예은 / $100 강향숙 / $5 두드림교회 / $10 예수사랑교회 / $55 한사랑교회(김현준) / $65 선한목자교회 / $300 우리교회> <designated $500: Coram Deo(12월)>

■ **EXPENSE: $9,531.93**

Payrolls: $3,983.40 사례비(2인) $3,533.40 / 은급비(4/4) $450

Mission Expense: 활동비 $78.17

Events: $2,676.00 <크리스피크림도넛 펀드레이저 $2,645.76> <윈터포멀 $30.24: 롱앤맥>

Class AGAPE: $198.25 통신비 $61.60 / 리더십미팅 $136.65

Admin & Management: $614.25 통신비 $67.20 / wix.com(웹사이트 3년 구독료) $519.80 / 사무용품 $16.25 / 은행 fee $11

Taxes: $486.65 payroll(12월)

Auto Expense: $997.21 밴할부금(pay-off) $429.54 / 운행비 $364 / 보험(1회차) $203.67

Designated Expense: $500.00 코람데오(12월)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2,032.02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6,579.49

| 텍사스

■ **INCOME: $9,389.12**

INDIVIDUALS: $1,725.00 $20 진현주 / $25 방진원 / $50 김태남&이선화, 김희경, 정선혜 / $80 정호영 / $180 채경수&임현정 / $270 박진영 / $1,000 손유진

CHURCH & BUSINESS: $1,855.12 $5.12 interest / $50 프렌즈교회, 포트워스제일장로교회 / $100 나눔교회, 라이프교회, 빛과소금의교회 / $150 영락장로교회 / $200 JDX Mission, 라이트하우스교회, 코너스톤한인침례교회 / $300 주님의교회 / $400 제자침례교회

DESIGNATED DONATION: $5,809.00 <사랑의교실: $200 무명 / $500 Justin Kim / $1,000 무명, Gil S and Jungsoon Lee / $1,409 The One Hero Project> <아카데미&오케스트라: $100 구본진 / $1,000 베다니장로교회> <직업재활: $600 세미한교회 Beanyard Coffee>

FOOD SUPPORT: Escape Bakery, 조이풀교회, 밀알학부모회

■ **EXPENSE: $6,628.04**

MISSION EXPENSE: $4,215.78 Payroll $1,385.25 / housing support $1,700 / 밀알&세계 인쇄비 $350 / 지단상회비 $192.51 / 은급비 $288.02 / 간사사례 $300

CLASS AGAPE & 밀알아카데미 & 오케스트라: $470.93 크리스마스선물 $441.75 / 점심재료 $29.18

ADMIN & MANEGEMENT: $1,941.33 장소사용료 $200 / 재정관련수수료 $120.17 / 통신비 $257.31 / IRA tax $229.50 / NTTA toll $240 / Gas $285.52 / Insurance $100 / 우표구입 $78 / 홈페이지wix.com 연회비 $220.83 / P.O.Box 연회비 $210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5,539.94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8,301.02

The World Milal Association 세계밀알연합 | worldmilal.org

서울 동작구 솔밭로 97-6, 3층 / Tel: 02-533-9251 / Fax: 02-533-9258 / wmilal@worldmilal.org

American Milal Mission Inc. 미주밀알선교단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 Tel: 562-229-0001 / Fax: 562-229-0006 / wheatmissioninus@gmail.com

Milal Mission in Southern California 남가주밀알선교단 (이종희 단장) | milalsca.org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 Tel: 562-229-0001 / admin@milalsca.org

정기모임	OC	매주 목 오후 7:00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LA	매주 화 오후 7:00	남가주새누리교회	975 S. Berendo St, Los Angeles, CA 90006
	밝은예배	매월 마지막 화요일 오후 7:00 (현재는 Zoom으로 드리는 월례기도회로 대체)	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사랑의교실	OC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2:00	남가주연합장로교회	1565 W. Katella Ave., Anaheim, CA, 92802
	LA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2:00	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동부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2:00	선한청지기교회	2701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얼바인	매주 토 오전 9:30 ~ 오후 1:30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토랜스	매주 토 오전 9:30 ~ 오후 1:30	토랜스제일장로교회	1880 Crenshaw Bl., Torrance, CA 90501
	성인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2:00	남가주밀알 사무실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통합반	매주 토 오후 2:30 ~ 오후 6:30	남가주밀알사무실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Milal Mission in Northern California 북가주밀알선교단 (김정기 단장) | milalnca.org

871 Coleman Ave. Suite 205, San Jose, CA 95110 / Tel: 408-605-2134 / norcalmilal@gmail.com

장애인과 함께 나누는 예배와 찬양모임

정기화요모임	산호세	매주 화요일 저녁 6:30 ~ 9:00	세계선교침례교회(1,2,4,5주)	62 S.San Tomas Aquino Rd, Campbell, CA 95008
			산호세한인장로교회(3주)	770 Lucerne Dr. Sunnyvale, CA 94085
사랑의교실	산호세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3:00	산호세새소망교회	2900 Patrick Henry Dr. Santa Clara, CA 95054
	산타클라라	매주 토 오전 10:30 ~ 오후 3:30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1001 Ginger Lane, San Jose, CA 95128

Milal Mission in Seattle 시애틀밀알선교단 (장영준 단장) | seattlemilal.com

8506 238th St. SW, Edmonds, WA 98026 / Tel: 425-444-1669 / Fax: 425-774-2499 / seattlewheat@yahoo.com

사랑의교실 시애틀	매주 토요일 오전 10:30 ~ 오후 2:30	시애틀연합장로교회	8506 238th. SW, Edmonds, WA 98026
Seattle Milal Academy (성인 장애인)	매주 화요일 오전 10:30 ~ 오후 3:00	시애틀형제교회	3700 Monte Villa Pkwy. Bothell, WA 98021
Tacoma Milal Academy (성인 장애인)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 오후 3:00	타코마중앙장로교회	8001 Pine St. S. Lakewood, WA 98499

Milal Mission in Vancouver 밴쿠버밀알선교단 (이상현 단장) | vancouvermilal.com

Instagram: @Vancouver_milal | Youtube: @Woorilog 우리로그, @Vancouvermilal 벤쿠버밀알

14625 108 Ave, Surrey, Upper Room, BC, V3R 1V9 CANADA / Tel: 604-339-4417 / vanmilal01@gmail.com

사랑의교실 토요모임 Happy Together	매주 토요일 오전 10:00 ~ 오후 12:00	써리장로교회	15964 88th Ave., Surrey, BC, V4N 1H5

예배, 작업치료, 음악, 댄스, 사진, 크래프트, 운동, 레크레이션, 베이킹, 공동식사, 아웃팅, 난타교실

Texas Milal Mission 텍사스밀알선교단 (채경수 단장) | txmilal.org | facebook.com/texasmilal

2828 E. Trinity Mills Rd, #360, Carrollton, TX 75006 / Tel : 267-467-5971 / Fax: 682-292-1365 / txmilal@gmail.com

사랑의교실	매주 토요일 오전 9:30 ~ 오후 1:30	한우리미션센터	1835 Pearl St. Carrollton, TX 75006
밀알성경적상담	매주 월~금 오전 10:00 ~ 오후 3:00	밀알선교센터	2828 E. Trinity Mills Rd, #300, Carrollton, TX 75006
목요 밀알아카데미	매주 목요일 오후 1:00 ~ 오후 4:00	달라스우리교회	2633 Royal Ln, Dallas, TX 75229
밀알청년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5:00 ~ 오후 6:00	한우리미션센터	1835 Pearl St. Carrollton, TX 75006
밀알 청년오케스트라	매주 토요일 오후 2:00 ~ 오후 4:00	한우리미션센터	1835 Pearl St. Carrollton, TX 75006
화요 온라인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00	Zoom ID: 895 0864 4965 / Passcode : 152562	

전세계에 퍼져있는 밀알들

세밀연 미주총단	워싱톤 / 리치몬드 / 캐롤라이나 / 필라델피아 / 시카고 / 뉴욕 / 뉴저지 / 애틀랜타 / 시애틀 / 북가주 / 남가주 / 텍사스 마이애미 / 캐나다(토론토) / 밴쿠버 / 브라질 / 파라과이 / 아르헨티나 / 과테말라 / 멕시코
세밀연 유럽총단	북부독일 / 중부독일 / 남부독일 / 베를린 / 오스트리아 / 프랑스 / 스페인 / 포르투갈 / 헝가리 / 벨기에 / 우크라이나 바르셀로나 / 베오그라드 / 코소보
세밀연 한국총단	경기 / 전남동부 / 김포강화 / 거제통영 / 목포 / 부산 / 수원 / 용인 / 고양 / 구미김천 / 양산 / 경기광주 / 고흥보성
기타지역	뉴질랜드 / 호주 / C국(A,B) / 방글라데시

2026 Milal Scholarship Recipients

■장애인 장학생 | Full-Time Students in the U.S. (7 X $3,600 = $25,200)

	Name	School	Major	State
1	Cho, Esther J.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Science	NY
2	Kim, Jooyoung	Emory University	Liberal Arts & Science	GA
3	Kim, Sean H	Cal State Univ., Northridge	Kinesiology	CA
4	Mun, Tristin	Los Angeles Valley College	Media Arts and Film Editing	CA
5	Park, Raphael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Education	TX
6	Yang, Daniel	Dallas Theological Seminary	Master of Theology	TX
7	Yoo, Natalie	Glendale Community College	Film, TV, Electronic Media	CA

■ James Worldwide 장학생 (10명 x $1,000 = $10,000)

	Name	School	State
1	Lee, Jung Jun	Class AGAPE OC	CA
2	Lim, Sung Jun	Glory Church of Jesus Christ	CA
3	Yun, Joshua	Vrim Church	CA
4	Rhee, John	Class AGAPE OC	CA
5	Kim, Sansol	College View School	CA
6	Kang, Chanel	Class AGAPE OC	CA
7	Kim, Ryan	Cahuenga Elementary School	CA
8	Kim, Daniel	Hosanna Korean Church	CA
9	Kim, Michelle	Rossier Park School ATP	CA
10	Joo, Haseong	Cypress High School	CA

■ Moon Foundation 장학생 (10 x $1,000 = $10,000)

	Name	School	State
1	Ham, Dana	Scripps Ranch High School	CA
2	Chun, Eugene	Johnson Middle School	CA
3	Choi, Edward	Belmont High School	CA
4	Lim, Han Yul	Crescenta Valley High School	CA
5	Chung, Chris	Altus Charter School of SD	CA
6	Kang, Hye Rin	Parkview High School	GA
7	Lee, Nathan	Osborne Middle School	GA
8	Shin, Paul	NW CA Univ School of Law	CA
9	Lee, Jacob	Cypress High School	CA
10	Kang, Arnold	Arovista Elementary School	CA

■ 꿈나무 장학생 (18 X $1,000 = $18,000)

	Name	School	State
1	Kim, Joel	LA Milal	CA
2	Hwang, Daniel	All Nations Church	CA
3	Park, Chan Hee	Lenden Oaks (SLDC)	CA
4	Song, Jessica	Class AGAPE Adult	CA
5	Kim, Paul	Class AGAPE Torrance	CA
6	Kim, Brian	Class AGAPE LA	CA
7	Lee, Seong Ook	Class AGAPE ELA	CA
8	Kim, Jason	Class AGAPE LA	CA
9	Lee, Eugene	Carson Day Program	CA
10	Mok, June	All Nations Church	CA
11	Park, Taewon	Toward Maximum Independence	CA
12	Yang, Yea Lin	ANC GM	CA
13	Chang, James	Atlanta Class AGAPE	GA
14	Lee, Chan Hee	California Arts University	CA
15	Yom, Kenny	Glory Church of Jesus Christ	CA
16	Lee, Abigail	Valley Academy of Arts & Sci	CA
17	Jeong, Jeihoon	Cypress College Special Program	CA
18	Yang, Defang	Soongsil University	Korea

■ Chong's FF (5명 x $1,000 = $5,000)

	Name	Branch	State
1	Seung, Geon J	Class AGAPE Irvine	CA
2	Kang, Dong K	LA Milal	CA
3	Kim, Hye Ji	Class AGAPE Adult	CA
4	Nam, Esther	Road to Success	CA
5	Jung, Nicky	Jay Nolan	CA

■ 근로 복지생 (3 x $3,600 = $10,800)

	Name	Branch	State
1	Lee, Alice J.	NJ Milal	NJ
2	Cho, Michael	S.CA Milal	CA
3	Yoon, Edward	S.CA Milal	CA

■ Faith and Donovan Chang Foundation
(16명 = $5,888)
브라질, 멕시코, 태국, 필리핀 지정장학금

■ 제3국 및 동남아 장학생
(20명 x $1,000 = $20,000)

■ 사역자 육성 장학금
(20명 X $1,000 = $20,000)

■ 긴급 지원 대상 추가기금
(10명 X $1,000 = $10,000)

Total: **119명에게 $134,888** 수여

2001년부터 2026까지 **누적금액 $3,281,488**

*In 2026, we will be awarding **119 recipients in the total amount of $134,888**. Milal Mission, along with all the Scholarship recipients, would like to thank everyone who has helped raise funds through Milal Night to make Milal Mission Scholarship possible. We will continue faithfully in the New Year of 2026 to be able to award more recipients for 2027 Milal Mission Scholarship. Thank you.*